

수신 : 원장

참조 : 경영본부장, 센터소장, 동북아팀장

<중국경제동향보고 2001-38>

2001. 10. 22

KIEP 북경사무소

중국사회과학원 秋季報告(II)

4. 주요 현안의 경제적 의미 분석

□ 연내 WTO 가입의 영향

- 중국의 WTO 가입은 ▲경제의 효율성 증대 및 성장 촉진, ▲경쟁력 있는 시장환경 조성, ▲무역 규모 확대 등 중국경제의 중장기적인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 것임.
- 그러나 일부 산업 및 도시지역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, 무역흑자 축소 및 적자 전환 가능성도 있음.
- o 특히 산업, 무역, 유통, 취업 등 분야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예상되는바, 경쟁력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보다는 자본집약적 산업 및 하이테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것임.
- WTO 가입은 내년도 수출과 수입을 각각 0.7%와 1% 증대시킬 것이며, 소비 및 투자 증가로 경제성장률을 0.1~0.2%포인트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임.

□ 2008년 올림픽 개최 결정의 경제적 효과

- 북경시의 올림픽 개최 결정은 투자 촉진으로 이어져 중국 전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전망됨.
- o 북경시는 향후 7년 동안 총 2,800억 元을 투자할 계획
- o 매년 평균 470억 元을 투자할 경우, 2002년 경제성장률은 0.5%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예상되며, 동 금액의 50%이상이 신규 투자일 경우, 경제성장률은 다시 0.2%포인트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.

□ 미국 테러사태의 영향

- 테러이후 미국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 경제가 조기에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, 중국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수확대 정책의 영향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시킬 것으로 전망
- o 테러사태는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최대 0.3%포인트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나, 내년에는 그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.

5. 평가 및 시사점

□ World Bank 및 중국 경제학자들은 중국경제에 대해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음.

- World Bank는 금년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당초 예상치 7.3%보다 낮은 7.1%로 예상함.
- o WTO 가입과 올림픽 개최 결정 등은 투자와 소비 기대심리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여 테러사태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. 또한 13억 인구의 내수시장과 낮은 IT 산업 의존도 역시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이라고 지적.
- o 참고로, World Bank는 금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치인 4.5%보다 낮은 2.4%로 전망하였으며, 말레이시아는 0.9%, 베트남은 4.9%, 미국은 1.1%, 일본은 -0.8%에 그칠 것으로 전망
- 중국 국가통계국 관계자는 중국경제가 금년보다 내년이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함.
- o 현재 중국경제는 내수확대가 한계에 달해 안정적인 성장세 유지가 어렵다는 분석인데, ▲확대 재정정책으로 인한 정부채무 증가 및 투자 효율성 저하, ▲통화 증가율 둔화, ▲민간투자 부진 및 농촌시장 침체 등 내부적인 요인 이외에도 미국 경제 회복 지연 등 외부 요인도 지적함.
- o 중국사회과학원 王洛林 부원장 역시 수출 증가율 둔화에 따른 제조업 부진, 소득 불균형에 따른 소비수요 부족 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, 금년 및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작년 수준에 훨씬 못 미칠 것이라고 주장함.

□ 중국경제는 ‘나홀로 성장’에도 불구하고 고정자산투자, 소비, 대외무역 등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안고 있음.

- 금년 상반기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15.1%에 달해 전년동기대비 4.1%포인트 상승하였으며, 투자의 對GDP 기여도 역시 전년동기의 50%이하에서 77%까지 상승하는 등 최근 경제성장이 지나치게 투자에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됨.

- 또한 비국유경제의 투자 증가율 둔화가 더욱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, 2000년 상반기 국유부문과 비국유경제의 투자율 차이가 5%포인트에서 2001년 상반기에는 10%포인트 이상 확대되고 있음.

- 최근 소비 불균형은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안정 성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됨.

- 그 배경으로는 첫째, 높은 투자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비 수준, 둘째, 확대되고 있는 고소득 계층과 저소득 계층간의 소비 격차, 셋째, 도시 소비재시장과 농촌 소비재시장의 불균형 심화 등임.

- 금년 1/4분기 이후 세계 각국 경제의 부진으로 인해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데, 이는 미국 테러의 영향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.

- 중국 국내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수출이 타격을 입으면서 성장률이 최소한 2% 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제학자들도 있음(CNN 보도).

- 그밖에도 중국경제는 ▲국유기업 개혁의 미완성으로 인한 국유기업의 혁신 및 활력 부족, ▲농업 생산액 및 농민 수입 증가율 둔화, ▲금융개혁 지체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상존, ▲주가 하락에 따른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 확산 및 상장기업에 대한 악영향 등의 문제점이 남아 있음.

- 이런 중국경제의 문제점은 세계경제 침체에도 기인하지만 내부요인 때문이라는 분석임. 특히 ▲실업 증가, 불량자산 처리, 생산설비 과잉 등 국유기업 개혁의 어려움은 대외경제 침체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, ▲경제구조 및 산업 고도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엔진 육성도 아직 초기 단계이며, ▲정부의 불필요한 행정간섭도 축소되어야 함.

□ 따라서 중국정부는 대내외 경제의 문제점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성장세 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거시경제정책 조정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짐.

- 최근 중국정부는 위기대처 능력의 제고를 강조하고 있는바, 미국 테러사태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에 대비,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임을 시사함.
- 통상 중국경제의 대외개방도가 낮아 세계경제의 변화이후 약 6개월이 경과되어야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도 있음.
- 지속적인 확대 재정정책을 실시하는 동시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출 내역을 조정할 예정임.
- 첫째, 국채발행액 사용 내역 조정을 시사하고 있는데, ▲기업설비 및 기술개발 사용 비율 증대, ▲국채 발행액중 지방정부 사용 자금 확대, ▲서부지역 개발에 적당한 제조업 건설 자금 증대 등 비교적 구체화된 것으로 알려짐.
- 둘째, 다양한 재정정책 실시를 강조하고 있는데, 지속적인 국채 발행 및 재정 지출 확대이외에 기업의 세금을 감면하는 세제정책 실시를 검토하고 있음.
- 셋째, 재정정책의 효율성 저하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면서 재정정책 이외의 적절한 거시경제정책 수단 활용이 정부내에서 논의되고 있음.
- 중국정부는 금융정책 역할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할 방침인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▲인플레이션 없는 통화량 증가 유지, ▲금리 자유화 개혁 적극 추진, ▲다양한 금융정책 수단 활용 및 금융시장 구조개선 실시, ▲은행시스템 개혁을 통한 금융정책 효과 극대화 실현 등임. (***)

중국경제뉴스

1. 周小川 증감위 주석, 조만간 深圳서 차스닥 개장 시사

- 周小川 중국증감위 주석은 10월 15일 제3차 고신기술교역회에서 차스닥 출범 방안이 현재 5차례의 수정을 거쳐 거의 완비되고 있는바, 개장시일이 멀지 않았다고 밝힘.
- 周주석은 지난해 4월 미국의 나스닥을 대표로 하는 세계 각국의 2부시장에 침

체가 나타난 후 국내에서 차스닥의 출범과 관련 검토한 결과 새로운 문제점을 발견하고 수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 차스닥의 출범 지연 원인이라고 해석했음.

- 그러나 일정기간의 준비를 거쳐 현재 深圳 차스닥의 출범에 유리한 조건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周주석은 언급함.
 - 증시가 일정기간의 전체적인 조정을 겪은 후 거품이 많이 빠지고 투자자의 투자이념이 바뀌고 있음.
 - 증권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언론의 질책이 강화되고 관련 부문과 증감위의 징계가 강화되었음.
- 그는 차스닥의 출범으로 인한 1부시장의 진일보 약세 및 차스닥 출범 연기로 인한 상장희망기업의 1부시장 혹은 해외상장 등 일부의 우려에 대해 차스닥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1부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또 1부시장 혹은 해외상장 기업수도 전체 상장희망기업중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작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함.
 - 그는 첨단산업 및 첨단기업의 발전에 불확실성이 큰 만큼 2부시장의 불확실성도 1부시장보다 크기 때문에 혁신과 시범의 태도로 동 신흥시장을 지켜보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, 증감기구는 그것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함.(工商時報, 2001. 10. 15)

2. 중국, 3/4분기 GDP성장율 7.6%

- 국가통계국에 의하면 금년 3/4분기 GDP총액이 67,227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.6% 증가함.
- 1-9월 전국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공업증가액은 10.3% 증가한 19,597억 원, 9월 공업증가액은 9.5% 증가한 2,352억 원임.
 - 9월 국유 및 국유지배주주기업의 공업증가액은 9.2% 증가한 1,314억 원, 주식제기업은 10.4% 증가한 706억 원, 삼자기업은 10.6% 증가한 602억 원, 집체기업의 경우 약간의 둔화를 보임.
 - 9월 경공업의 증가액은 9.4% 증가한 932억 원, 중공업은 9.5% 증가한 1,420억 원
 - 9월 전자 및 통신설비제조, 교통운송설비제조, 전기기계 및 기차제제조, 야금 등 4개 업종의 생산증가에 대한 기여율이 46.3%, 품목별로 볼 때 마이크로통신설비와 이동전화기 및 컴퓨터의 생산량이 37.2% 증가, 자동차는 16.4% 증가

- 한 23.9만대, 철강과 강재는 각각 13%와 18.9%, 발전량은 8.8% 증가
- 9월 공업기업의 수출거래액은 5.7% 증가한 1,374억 원
- 9월 공산품 출하율은 98.28%
- 1-9월 재정수입(채무수입 불포함)은 11,872억 원으로 24.2% 증가
- 1-8월 공업기업의 이윤총액은 15.8% 증가한 2,862억 원, 그중 국유 및 국유지배 주주기업의 이윤액은 13.7% 증가한 1,556억 원임.
- 1-8월 적자기업의 적자액은 837억 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, 그중 국유 및 국유지배주주 적자기업의 적자액은 2.7% 감소한 522억 원임.
- 1-9월 전사회 고정자산 투자는 15.8% 증가한 21,221억 원
- 그중 부동산개발 투자 증가율은 31.4%, 기본건설투자는 11.7%, 갱신개조투자는 24.1%
- 중부와 서부지역의 투자는 동부지역에 비해 각각 3.8% 포인트와 7.2% 포인트 높음
- 3차산업의 투자 증가율은 22.0%
- 1-9월 사회소비재소매총액은 10.1% 증가한 26,793억 원, 주민 소비자물가는 1.0% 상승함.
- 1-9월 도시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7.4% 증가한 5,120원, 농촌주민의 1인당 현금수입은 5.2% 증가한 1,641원임.(經濟日報, 2001. 10. 17/18)

3. 1-9월 통화공급량 13.6% 증가

- 중국인민은행에 의하면 적극적인 안정 통화정책에 힘입어 1-9월 통화공급량의 증가가 경제성장에 기본적으로 부응하는바, 9월말 현재 M₂잔액은 전년동기대비 13.6% 증가한 15.2조 원, 증가율이 연초 기대목표 수준을 유지함.
- M₁잔액은 12.3% 증가한 5.7조 원, M₀잔액은 8.4% 증가한 1.5조 원
- 9월말 현재 금융기관의 각종 예금잔액은 15.9% 증가한 13.9조 원, 1-9월 누계 예금 증가액은 1.6조 원임.
- 9월말 현재 기업예금 잔액은 14.9% 증가한 4.9조 원, 주민저축 잔액은 12.7% 증가한 7.1조 원

- 9월말 현재 금융기관의 각종 대출잔액은 12.3% 증가한 10.9조 원, 1~9월 누계 대출 증가액은 9,571억 원임.
- 9월말 현재 국내금융기관의 외화예금 잔액은 12% 증가한 1,348억 달러, 1~9월 누계 증가액은 60.3억 달러임.
- 9월말 현재 외화보유액은 1,957.6억 달러로 금년 1~9월간 총 301.9억 달러이 늘어났음. 9월말 현재 미달러화에 대한 인민폐 환율은 8.2769로 지속적으로 안정세 유지 (金融時報, 2001. 10. 17)